

◆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

① (경남 산청군)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빈집 정비

- 노후 주택·고령화로 쇠퇴한 마을에 지역 문화자원(한방)을 활용한 빈집 정비를 통해 외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

② (강원 고성군) 적극행정으로 최북단 지역의 노후환경 개선

- 고령 등으로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강원 최북단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사업 참여를 설득하고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개량하여 50년 이상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

◆ 지역동향 ③ (인 천)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 동향

1 (경남 산청군)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빈집 정비

※ '25년 행안부 빈집정비 우수사례집 등재,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공공부문 우수상

- 경남 산청군 수청상봉마을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건축물의 비율이 83.5%로,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며 비좁은 골목길로 인한 주차공간 협소,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마을의 활력이 지속 저하되는 상황



녹색 : 20년 이상 / 짙은 녹색 : 30년 이상

출처 : 행정안전부

- 郡은 정주환경·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쇠퇴한 도시지역을 살리고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'산청별곡, 산청에 살으리랏다' 사업을 본격 추진
 - '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약 195억원(국비 40억, 도비 8억, 군비 48억원 등)의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 26호를 철거하고, 낡은 집 82호는 수리하였으며, 철거된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
- 우선, 빈집 5채를 철거한 공간에는 '우리동네 주차장'을 조성, 주차면수 40면을 신규 확보하였고, 빈집 14개소 철거 부지에는 '24년부터 LH 임대주택 30호를 건설 중



〈'우리동네 주차장' 건립 전후〉

출처 : 행정안전부, 산청군

- 특히, '23.7월에는 산청의 한방 문화자원을 활용한 약선생활문화플랫폼('산청愛뜰')을 개소, 1층 약선(약재를 넣어 조리한 음식) 카페, 2층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, 약선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



〈'산청愛뜰' 전경〉 출처 : 쿠키뉴스

- 관광객들에게 '가성비 숙소(6만원)'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,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
- 현재 마을의 유동인구가 빈집 정비 시작 전('18년)에 비해 24% 증가하였고, 약선생활문화플랫폼에는 개소 후 10,023명이 방문하는 등,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성공
- '24년 타 시·군(3개)에서도 벤치마킹을 문의하였으며, 3.12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의 빈집거래·정보플랫폼(빈집愛)에도 우수 사례로 등재

2 (강원 고성군) 적극행정으로 최북단 지역의 노후환경 개선

※ '23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기관 표창

- 강원 고성군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소재한 郡으로, 그중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대진리 신촌마을은 1968년 해일 피해 이재민들이 주택복구 사업을 통해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
 - 주민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실향민·해녀들로 구성되었으며, 마을 형성 당시에 지어진 50년 이상 주택이 80%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
- 郡은 '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(농식품부)' 공모 선정에 힘입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비롯한 노후주택 정비와 주민 생활·위생 인프라를 개선을 추진('19~'22년)
 - 농어촌공사(영북지사)가 郡의 위탁을 받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맡고, 마을추진위원회가 사업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전달
- 사업 추진 과정에서 郡은 노후주택에 살면서 제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고령 등으로 인해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
 - 郡 공무원들은 사업의 취지 등을 직접 설명하며 설득해 나갔고, 지붕이 개량되고 주택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설이 개선되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열림

- 아울러, 자기부담금 부담이 어려워 중도 포기한 기초·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郡은 본예산 외에 예산 운용지침상 한도 내에서 주민 자기부담금을 군비로 충당하여 벽체균열, 누수 등을 보강 완료
- 주택 개량 외에도 마을 안전시설도 확충하였는데, 해안진입로를 정비하고, CCTV(8개소), LED가로등(10개소) 및 LPG 가스통 보호 장비(140개)도 설치하였으며, '88년 이후 보수가 없었던 마을회관도 리모델링을 완료



해안진입로



LPG 가스통 보호장비



마을회관

-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인접 관광지(화진포, 통일전망대 등)와 연계, 방문객이 늘고, 제빵체험, 장수사진 촬영 등 주민 간 소통도 늘어난 만큼, 郡에서는 향후 귀농·귀어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책을 검토

3 인 천(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 동향)

- 인천 서구는 내년 7월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(서구→서구·검단구)에 맞춰, 현재의 방위식 명칭이 지역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, 區 명칭 변경을 추진
 - ※ 중구 일부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바뀌면 자치구 중 방위식 명칭은 서구가 유일
 - 지난 1.20~2.9일 새로운 명칭 공모를 실시(총 1,364개 접수), 區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옛 명칭, 지리적 위치,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경명·서곶·서해·청라 등 4개 명칭을 후보로 선정
- 그러나, 지역사회에서는 새 명칭 선정 절차를 두고, 충분한 홍보와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
 - ※ 과거 인천 남구는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 시 17만 가구 대상 조사를 실시
 -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'정서진구'가 후보에서 탈락하는 등 과정에 의문을 표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
 - 일부 청라 주민들은 청라국제도시의 명성과 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후보에 '청라구'가 포함된 것에 반발,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행동을 개시
- 한편, 區는 3.12일, 2천명 대상 명칭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(2.24~3.9일)에서 '청라구(36.3%)', '서해구(35.2%)'가 각각 1,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
 - 두 명칭이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벌이면서, 區는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둘 중 최종 후보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힘

참 고

시·도지사 주요 일정(3.14)

시·도	시 간	내 용
서 울	-	· 청내근무
부 산	10:00 14:00	· 市의회 제327회 임시회 · ‘우리동네 ESG센터’ 사업 추진 업무협약
대 구	-	· 청내근무
인 천	11:10	·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기이사회
광 주	10:30 15:00	·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· 市간호사회 제36회 정기대의원 총회
대 전	14:00 17:00	· 제22회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· 헤레디움 개관 2주년 기념식
울 산	-	· 공무국외출장(우즈베키스탄)
세 종	16:00	·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1차 회의
경 기	-	· 청내근무
강 원	10:00	· 道의회 제335회 임시회
충 북	10:00	·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
충 남	-	· 청내근무
전 북	14:30	· 제2기 전북농어업 농어촌위원회 출범식
전 남	-	· 청내근무
경 북	18:00	· APEC 회원국 대사초청 문화교류행사
경 남	-	· 청내근무
제 주	10:30	· 주한 독일대사 면담